

GIST, 제12회 Creative Space G AI&IoT 메이커톤 개최

- 11월 8일(금)~9일(토), GIST 캠퍼스 복합창업공간 'Creative Space G'에서 창업 아이디어 기반 시제품 제작... 경북대·전남대 등 대학생 41명 10개 팀 이뤄 참가
- AI 활용 시각장애인 독서보조장치 '보닷' 제작한 전남대 폰테 팀 최우수상 수상
"창의력과 협업 능력 발휘하는 모습 인상적... 창업 발판 마련 위해 소중한 기회 되길"



▲ GIST 창업진흥센터가 제12회 Creative Space G AI&IoT 메이커톤을 개최하고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.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전국 단위의 대학(원)생 및 일반인이 참여하는 '제12회 Creative Space G AI&IoT 메이커톤*'을 개최했다고 밝혔다.

'Creative Space G AI&IoT 메이커톤'은 인공지능(AI)과 사물인터넷(IoT) 관련 창업 아이디어 시제품을 제작하는 경진대회로, GIST 창업진흥센터(센터장 김민곤)는 지역 및 학내 건전한 창업문화를 고취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12회째를 맞았다.

* AI&IoT 메이커톤(MAK·ATHON: Make + Marathon):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관련 디지털 제조 장비를 활용해 시제품을 제작하는 해커톤 방식의 경진대회

총 10개 팀 41명이 참가하여 11월 8일(금)부터 9일(토)까지 이틀간 열린 이번 경진 대회에서는 각 팀의 창업 아이디어를 직접 시제품으로 제작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.

참가자들은 GIST 캠퍼스 내 복합창업공간 Creative Space G에서 3D 프린터와 레이저 가공기 등 디지털 제조 장비를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에 나섰다.



▲ 제12회 Creative Space G AI&IoT 메이커톤 참가자들이 GIST 캠퍼스 내 Creative Space G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만들고 있다. Creative Space G는 디지털 제조 장비 운용, 제작 전문인력 지원, 창업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복합 창업 공간이다.

각 팀의 아이디어에 대하여 아이디어 고도화, 제품 디자인, 3D모델링, 디지털 제조 장비 활용, 회로 및 소프트웨어 등 다방면에 걸쳐 이번 메이커톤 운영사인 '만들닷 주식회사(대표 심은지)'의 워킹 목업(Working Mock-up: 동작이 구현된 시제품) 멘토링이 지원되었다.

최우수상은 ▲AI를 활용한 시각장애인 독서보조장치 '보닷'을 제작한 '폰테'팀(전남대학교 마채웅·김신혜·박현우·장지혁·정찬)이 수상했으며, 우수상은 ▲자율주행 빗물받이 청소로봇 'WAPPER'를 제작한 '다이노'팀(전남대학교 한명현·권성주·박재민·장희천·조연우)이, 장려상은 ▲IoT센서 및 AI를 활용한 집보기 기록 디바이스&앱 'ZipPT 집피티'를 제작한 '복덩이'팀(GIST 김철희·김여원·이재선·이재희)과 ▲블록코딩-텍스트 코딩 전환 학습을 돕는 지능형 회로블록 키트를 제작한 '하이코딩'팀(경북대학교 원채희·이성배·추강민)이 수상했다.

GIST 이재영 연구처장은 "1박 2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AI&IoT 관련 **아이디어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창의력과 협업 능력을 발휘**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다"며 "이번 대회를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되고 추후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 발판을 마련하는 데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"고 말했다.